

제주지역 국·공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

강은실(교육담당 주무관)

I. 서론

오늘날의 박물관은 일반대중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였다. 즉, 여가에 대한 교육적 접근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적 기능의 강화이다.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1970년대에 박물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박물관의 주요업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후 국제박물관협회 박물관 윤리강령¹⁾에서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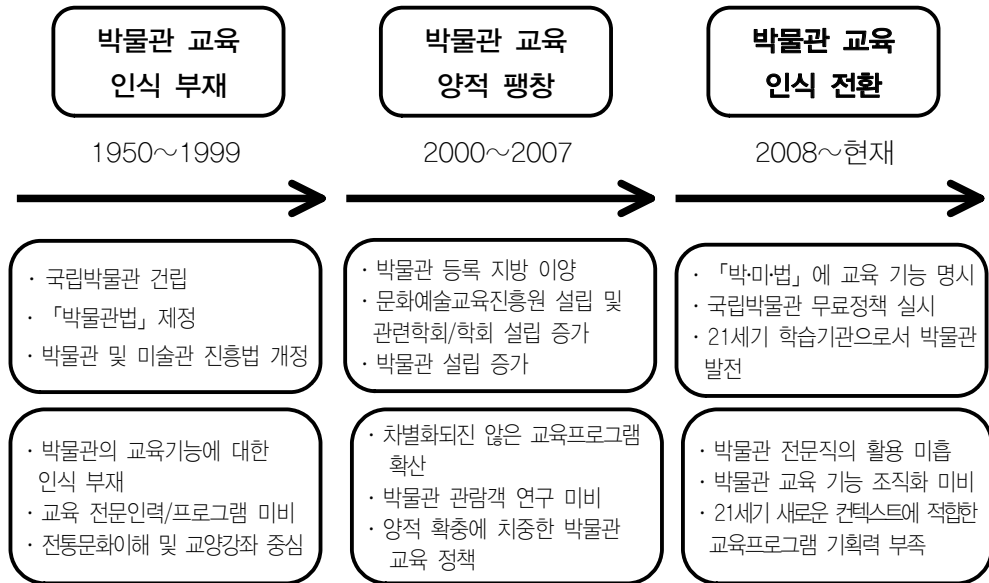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관람객과 전시를 연결하는 소통을 통하여 전시와 전시물에 대한 정보 제공, 전시의 이해와 해석, 문화적 체험의 기회 제공 등의 교육활동²⁾으로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 박물관은 학교교육의 대체 교육 차원에서 부각되고 평생교육의 허브역할을 담당한다.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개념, 기능, 그에 따른 설립목적,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와 연계된 박물관 교육은 매우 다양하며 박물관이념 구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 국제박물관협회 박물관 윤리강령에서는 '박물관은 교육적 역할을 개발하고 박물관이 이바지하는 지역 사회 혹은 공동체로부터 광범위한 이용자의 관심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 및 그들의 유산을 진흥하는 것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백령, 박물관교육연구, 2007

표 1. 박물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³⁾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학교의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로 학교 밖 체험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지방화시대에 지역적 문화의 특수성과 독창성은 문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강조됨으로써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주는 21세기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며 세계를 향한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세계와 교류 정책 속에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박물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인구 100만 명당 공공도서관 및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등 문화시설 수가 15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⁴⁾ 등록박물관은 사립박물관 47개관, 국립 1개관, 박물관 14개관으로 총 62개관에 이른다. 2009년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조사⁵⁾를 살펴보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 기회가 많고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화기반시설이 도

3) 정갑영,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4)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전국 각 지자체 인구대비 문화시설 현황」, 2012.

5)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2009.

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소외계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제주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는 높지만 문화기반시설의 도심지 집중과 허술한 시설운영 등으로 참여의 기회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적 문화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은 문화 향유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공립박물관의 경우에도 박물관은 관광시설로 인식되어 관람객수와 운영수익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박물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육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함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이런 박물관의 문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박물관의 설립 주체가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박물관에 부여된 과제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설립 주체별 박물관들이 상호 협력적 접근 속에서 문화적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우선적으로 제주지역의 국·공립박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통한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11년에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회교육 프로그램 공유, 소장자료 발간 등 박물관의 공동 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2년에는 ‘광령천’ 공동 학술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중문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국·공립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어 비교·분석하였다. 도내 국·공립박물관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을 선정하였다.

Ⅱ. 국·공립 박물관의 교육 현황 비교 분석

각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설립목적과 운영목표, 전시 내용,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운영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담 교육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의 배치, 충분한 운영예산의 확보, 맞춤형 교육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프로그램 홍보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성은 정서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구와 교육인력, 예산, 교육시설, 프

로그래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1. 국·공립 박물관 교육 운영 기반

1) 조직 및 교육인력

국립제주박물관은 1과 1실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기획운영과에서는 예산 및 시설관리, 문화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며, 학예연구실은 전시실 운영, 문화유적조사 및 학술조사, 박물관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학예연구실 인력은 총 10명이며 그 중 2명의 학예사가 성인 및 청소년, 어린이·가족 분야로 구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전담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대상의 구분과 전담인력의 배치는 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학예연구실과 행정실 등 2실로 운영되고 있다. 학예연구실은 학예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학술·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행정실은 기획과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학예 업무는 연구사와 조교 등 3명이 학술·기획·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유물관리를 분담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팀 2과(科)로 조직·운영되고 있다. 행정지원팀은 예산·회계 및 운영 관련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고고민속과와 자연사과는 총 6명의 학예인력이 배치되어 각 분야별로 학예업무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분야의 2과(科) 분리 운영은 전문적 조사·연구 기능에는 기여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융·복합적인 학예업무 추진과 프로그램의 개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1실(연구실)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기획부와 총무부 등 2부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부는 전시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학예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총무부는 예산·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부에는 학예인력 3명과 기능직렬 3명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전담인력 1명이 기능직렬의 업무지원을 받으면서 담당하고 있다.

각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육이 박물관의 핵심기능이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비해 전담인력은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다.⁶⁾ 이는 공무원 인력의 특성상 자체의 노력만으로 확보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예산

국립중앙박물관의 2011년도 교육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4%인 9억 8천 5백만 원이다. 반면

6) 박물관 교육을 관람객 집객과 수요확충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전문적 교육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 교육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노력은 부족하다

에 지방국립박물관의 교육예산을 보면, 국립제주박물관이 1억 1천만 원, 국립춘천박물관이 9천 5백만 원, 국립진주박물관이 9천만 원 등으로 지방 국립박물관의 평균 교육 예산은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되었다.⁷⁾ 예산적 측면에서 볼때, 국립중앙박물관 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박물관의 교육예산은 전체예산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방국립박물관들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이나 전략계획 하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운영예산의 미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의 4대 추진과제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박물관의 교육기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낮은 인식의 전환 없이는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는 요원하다.

제주지역의 국·공립 박물관의 교육 예산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체예산의 10%내로, 그중 제주교육박물관이 7%로 교육 예산 비율이 가장 높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전체 예산이 약 34억 원으로 가장 많으나 교육 예산의 비율은 3.3%인 1억 1천만 원이며, 민속자연사박물관은 4%로 3천 4백만 원이다⁸⁾. 제주대학교박물관은 별도의 교육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제주시청으로부터 위탁받아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의 문제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찾는 해법이 필요하다.

표 2. 국·공립 박물관 교육 예산 비교

(단위 : 천원, 2012년)

구 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비 율	3.3%	-	4%	7%
교육 예산	110,000	-	34,946	38,300
전체 예산	3,401,021	11,800	942,847	582,595

주) 제주대학교박물관 전체예산은 일반운영비만을 기준으로 작성함.

각 박물관 내부자료를 이용 재편성 함.

3) 교육시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주제와 대상, 운영방법 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물과 융합된 창의체험 활동과 전문

7) 정갑영,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34.

8)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012년 (사)한국과학관협회의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약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화산섬 아이들의 과학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적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용 교육 시설의 구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어린이 박물관을 건립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 국·공립 박물관 교육시설 현황

구 분	교육시설	규모	면적(m ²)	비고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올레	-		상설체험관
	강당	286석	274	
	세미나실	50석	127	
제주대학교박물관	세미나실	120석	192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99석	225	
	사회교육실	40석	63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	224석	257	
	평생학습실	50석	128	
	체험학습실(2)	-	128	상설체험관

국립제주박물관은 어린이 올레와 강당, 세미나실을 이용하여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설체험관 어린이 올레는 제주의 어린이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다. 300석 규모의 강당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공감 프로그램으로 음악회, 뮤지컬, 영화감상, 강연 등을 통한 박물관 산책 등이 운영된다. 세미나실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다채로운 문화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박물관은 2012년 신축 이전으로 120석 규모의 세미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주시로부터 위탁 받은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시청각실과 사회교육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평일에는 관람객을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전통문화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교육실은 다양한 체험 교육과 강좌 등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시청각실과 사회교육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시설로 공유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극장, 평생학습실, 체험학습실 2실을 갖추고 있다. 뮤지엄극장은 방학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감상실로 운영되며 체험학습실은 상설체험관으로 전시물관 연계한

체험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야외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체험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 시설의 체계적 구축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적절한 교육 시설의 부재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많은 제한을 가함으로써 품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그림 1〉 국·공립 박물관 교육시설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울레



국립제주박물관 강당



제주대학교박물관 시청각실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민속자연사박물관 사회교육실



제주교육박물관 평생학습실



제주교육박물관 체험학습실



제주교육박물관 야외 체험학습실

2. 국·공립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1)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국립제주박물관은 ‘격조있고 사랑받는 박물관’을 미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탐라 및 해양문화전문 박물관으로의 특화,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박물관의 실현,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구축 및 중심 역할 수행을 구체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각종 체험교육 및 문화공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제주지역의 중심문화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가족·어린이, 학교연계, 성인, 지역문화소통 4분야 총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어린이 분야 프로그램은 ‘체험관 어린이올레’, ‘전통문화체험’, ‘박물관 호기심 천국’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학교연계 분야는 ‘학교, 박물관을 찾다’, ‘우리문화 학교에 가다’ 등 9개 프로그램이 있다. 성인분야는 ‘제10회 박물관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지역문화소통 분야에는 ‘마사회 축제연계프로그램’, ‘공항에서 만나는 제주 문화의 향기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어린이체험관에서 ‘정의고을 만들기’, ‘수호신 동자석’ 등의 놀이를 통한 제주의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올레’와 전시실내 체험관을 이용한 ‘전통문화체험’을 상설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과 연계한 ‘예비교사 박물관 아카데미’는 향후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박물관 인식과 관람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2) 제주대학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제주대학교박물관은 4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개관 이래 각종 학술조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외 고고, 미술, 역사, 민속,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전시, 보존하여 학술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2012년 6월 신축 이전으로 그 동안 수집·기증·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귀중한 유물을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명실상부한 제주도의 대표 대학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역사문화박물관대학을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8개월여 동안 30여회를 걸친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전문적인 강좌를 통해 제주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등록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록 노력하고 있다.

3)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전시, 조사연구, 사회교육, 국내외 학술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도민과 관람객들에게는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제주관광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기반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박물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소외지역과 개별적 참여가 어려운 소외지역시설 및 학교, 양로원과 마을 노인당 등 어르신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총 14개 과정이 연중 운영 중이다. 특히 토요일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에 ‘자연유산생태교실’ 과 ‘박물관창의마당’ 을 운영하여 제주의 자연생태문화 탐방과 창의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드림교실’,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 가 운영되고 있다. ‘전통문화 강좌’, ‘감물염색체험’,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교과서 속 역사기행’ 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사)한국과학관협회의 ‘학교 밖 창의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 를 통해 ‘화산섬 아이들의 과학여행’ 을 운영하였다.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 교육복지우선학교 초등생을 대상으로 제주의 자연생태문화와 전통민속문화를 아우르는 탐방 활동과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연과 민속이 융합된 교육으로 도내 초등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4) 제주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교육의 태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에 대한 교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외 각종 교육자료 및 기증자료를 특별전시하여 문화향유의 증진은 물론 도민들이 향토교육자료를 기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아우르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즐거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과 지역주민,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하여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강좌와 우리 고장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으로 ‘문화 유적지 및 박물관 속으로 빠져들기’, ‘함께 즐기며 배우는 박물관 학교’, ‘봉숭아꽃 물들이기’ 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맞추어 ‘박물관 토요 문화 예술 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등생을 대상으로는 제주어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마당’ 을 운영하며, 방학기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실’ 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은 학교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점을 활용하여 교직원과 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로 제주교육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더욱 강조되고 확대될 것이다.

Ⅲ. 국·공립 박물관의 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에 경제 및 문화시설의 격차가 크고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1)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의 전통민속문화와 자연생태문화, 역사문화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선택의 폭을 넓혀 문화욕구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대인들의 지식적 충족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 개발의 의지는 전문가 이상의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전문 지식 습득을 통한 다방면의 사회활동으로 이어진다. 제주 지역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가, 문화재지킴이 등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공립 박물관의 전문 학예인력과 박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성화된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결국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소외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제주도는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이 제주시권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국·공립박물관도 4개관

이 모두 제주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 역시 대부분 제주시권 지역 주민으로 파악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외 지역 주민들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공립박물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외 지역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개별 참가 신청이 어려운 아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노년층을 위한 교육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문화 향유를 위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문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3) 교육 네트워크 구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공립박물관은 제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회교육 프로그램 공유, 소장자료 발간 등 박물관의 공동 사업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공립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2명의 인력이 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기획, 강사 섭외, 교육학습지 구성, 교육재료 구비, 체계화된 진행, 결과 평가 등 부수적 운영 준비가 필수적이다. 10여개 과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평가를 1인 교육 인력이 전담하는 것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조직 내에 별도의 교육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박물관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교육 정보의 교류가 절실하다.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정보의 교류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강사 섭외, 적합한 교육재료 구비 등에 기여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4) 프로그램 사례 발표 기회 마련

최근 박물관과 관련한 세미나에서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관련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사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험관 개관 10주년 행사에서는 박물관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철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사례’를 통한 전문박물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2012년도 국립민속박물관의 박물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서도 ‘다문화꾸러미 개발 운영, 놀이를 통한 교구재 활용법 실습’, ‘청소년 교육 개발·운영 사례’, ‘가족·어린이 교육 개발·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사례 발표를 통해 각 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성공적

운영 노하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각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공립박물관이 중심이 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박물관은 물론 사립박물관이 참여하여 도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한 문제점 보완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여 박물관 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결론

각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사회적 교육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즉,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배치, 충분한 예산 확보, 교육시설 구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공립박물관의 특성상 박물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를 확보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정책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며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이를 실천할 수 없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도 요원하다.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실질적 행동이 수반될때 비로소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지역주민에게 체득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중앙박물관, 「2011 국립박물관연보」, 2012.

국립제주박물관, 「박물관교육 심포지엄」, 2012.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10~2011 박물관 연보」,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전국 각 지자체 인구대비 문화시설 현황」, 2012.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도민의 문화의식 및 문화생활 실태조사」, 2009.

정갑영,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jeju.museum.go.kr>.

제주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jejunu.ac.kr>.

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museum.jeju.go.kr>.

제주교육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jjemuseum.go.kr>.

